

Ⅱ. 통일의 원칙과 화해협력

1. 조국통일 기본원칙과 민족대단결

김 구 식

여러분!

나는 오늘 남조선과 해외에서 조국통일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 통일토론회에 참가한 여러분들과 함께 민족지상의 과제를 놓고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통일론의를 위한 마당이 여러 형태로 마련되었지만 이번에 북과 남, 해외의 학자들끼리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도 아주 큰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조국해방 50돛이자 민족분렬 반세기가 되는 8. 15를 눈앞에 두고 북과 남, 해외가 민족통일대축전을 판문점에서 공동으로 치르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때에 이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은 그 중요성을 더 부각시킬 뿐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온 민족의 기대도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90년대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조선민족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한 강토 우에서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면서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그러한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열되었으며 외세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분렬은 북과 남,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의 통일적 발전

과 조국의 룡성변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아울러 분렬의 비운을 겪게 된 나라들이 다 통일을 실현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민족만이 계속 갈라져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절통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적 비극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으며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다음 세기로 넘어가기 전에 90년대에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의지이며 어길 수 없는 통일의 시간표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물론 어려운 투쟁이지만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신심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을 달리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통일강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강령에 대해 말할 때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강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평생을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조국통일강령을 내놓으시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강령으로서 첫째로 조국통일 3대 원칙, 둘째로 전민족단결 10대 강령, 셋째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었습니다.

통일문제해결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 립장과 원칙을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온 민족의 힘을 합쳐 통일의 주체적 력량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힌 련방국가 창립방안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길을 명시한 통일강령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조국통일강령을 기치로 90년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80 고령이 넘으신 몸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다가 뜻밖에도 집무실에서 순직하신 것을 생각하면 가슴

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를 있는 정치가들도 많고 뛰어난 지도자들도 많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바치시고 순직하신 그런 위대한 령도자는 없으며 우리 수령님처럼 온 민족이 향유할 수 있는 고귀한 민족적 유산을 남겨주신 그런 위인은 없습니다.

바로 조국통일의 세 가지 강령은 그런 민족적 유산의 일부이며 우리 민족이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들고 나가야 할 필승의 보검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72년에 북과 남 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만나신 자리에서 통일문제 해결의 기초로 되는 근본원칙을 내놓으시었습니다.

그 근본원칙은 첫째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여야 하며, 둘째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여야 하며, 셋째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측대표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애국 애족적 성격과 공명정대성에 탄복하여 그 자리에서 이 원칙을 찬성하고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정식으로 합의하였으며 7월 4일에는 이 3대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을 세상에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북과 남 사이에는 민족이 분렬된 지 4반세기만에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은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전체 조선민족이 통일위업을 수행하는 전력사적 기간에 걸쳐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입니다.

그러면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이 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이 원칙이 통일문제의 본질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통일강령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이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옳게 해결하자면 조국통일의 주인인 조선민족의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현하며 무력을 쓰는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실현할 것을 필수적으로 제기합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은 통일문제의 이러한 본질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둘째로, 3대 원칙이 온 민족의 의사와 근본리익을 옳게 반영한 통일강령이라는 데 있습니다.

분열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의 리익에 관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 민족적인 애국위업입니다.

이로부터 조국통일원칙이 민족공동의 강령으로 되자면 그것이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분렬의 비극을 가시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더 사활적인 과제는 없습니다.

조국통일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통일문제를 민족의 근본리익과 자주성 실현의 요구에 맞게 해결할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으며 협상과 대화의 방법으로, 민족의 주체적 통일력량에 의거하여 실현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우리 민족의 이러한 근본리익과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침으로 삼아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됩니다.

그 근거는 셋째로, 우리나라에 조성된 구체적 조건과 현실적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한 통일강령이라는 데 있습니다.

원래 단일민족으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이 일시적으로 북과 남으로 갈라졌지만 민족적 공통성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북과 남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한다면 그 차이를 초월하여 자주적 민족으로서 하나로 단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민족의 근본리익을 위하여 하나로 단합하여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되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생명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이 발표되자 전체 조선민족은 통일의 길 위에 새로운 서광을 비추주는 민족적 경사로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여는 역사적 사변으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국경보다도 더 철저히 봉쇄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격패상태에 있던 북남관계가 하루아침에 급변하게 된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통일이 되는 모양이다, 민족분렬의 비극이 끝장나게 되면 우리 민족은 잘살게 되고 헤어졌던 부모처자들과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성명의 발표에서 받은 충격과 감격이 8. 15해방의 그날보다 더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분렬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겪어 왔고 또 겪고 있는 고충이 너무도 컸으며 그만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마음이 절절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 민족은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접수하고 거기에서 통일의 길을 찾았으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안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은 오늘도 변함없이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기본강령으로서 자기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강령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룹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조건이며 결정적 요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어떤 사회력사적 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일찌기 민족대단결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 오시었으며 1993년 4월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친히 작성 발표하시어 민족단합의 대헌장을 밝혀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심화 발전시키신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민족적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민족구성원 전체를 조직적으로 묶어 세워 정치적 대련합을 실현한데 대한 사상입니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재산과 지역의 차이를 초월하여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다 손을 잡고 단결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각자가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맞게 특색 있는 기여를 하게 하며 일단 손을 잡은 사람과는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항구적인 단합을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일문제는 온 민족의 거족적 투쟁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전민족적 위업입니다.

이 력사적 위업은 어느 한 계급이나 정파의 힘으로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위업입니다.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입니다.

조선민족은 누구나 다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따라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주체의 위력은 다름 아닌 단결의 위력입니다.

한 대의 싸리나무는 꺾기 쉬워도 열 대로 묶은 싸리나무는 꺾을 수 없습니다.

은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여기에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가 있습니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단결의 대상을 가장 폭넓게 포용하고 있습니다.

단결의 대상은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을 고려하여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을 잡고 있으며 사상리념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누구나 다 포괄하며 재산의 유무로 보면 무산자나 유산자를 가리지 않으며 신앙상으로는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다 대단결해나갈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애국의 길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허물을 묻지 않고 너그럽게 포섭하여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민족단합의 대상을 얼마나 넓은 폭으로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계급관계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해방 후 북과 남에 조성된 정세, 3년간의 전쟁으로 하여 매우 복잡하게 되었으며 또 국토광단과 민족분렬로 인하여 지역적, 계급적 대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국통일이라는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리익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민족적 리익을 앞세우고 과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중시하며 민족적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과는

다 단결하는 것이 필연적 요구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줌도 못되는 민족반역자들, 분렬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전체 조선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단결의 방식에 대하여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에 특색 있는 기여를 하는 식으로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민족성원들이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동자, 농민들은 힘을 가지고 기여하며 우리들 지식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기여하며 재산가들은 돈을 가지고 통일위업에 기여함으로써 각자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민족단합전선에 합류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토론회도 우리 지식인들이 지식으로 통일의 대강을 확인하고 통일의 구체적 방도를 모색함으로써 민족대단결에 이바지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인은 언론을 통해, 문예인들은 문예활동을 통해 대단결에 이바지하며 종교인들은 종교활동을 통해 대단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성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여 민족대단결에 기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태산도 허물고 대해도 메우는 거대한 힘을 될 것입니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또한 민족단합의 길에서 일단 손을 잡은 사람과는 항구적으로 단합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전선에서 단합하여 함께 싸운 사람과는 통일이 된 다음 조국의 룡성변명을 위한 길에서도 변함없이 손을 잡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상한 인간애와 민족적 의리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공분자들은 우리의 민족대단결사상, 민족통일전선사상을 왜곡하여 “북의 통일전선전략”은 중산층들을 일시적으로 리용하고 자기의 목적을 실현한 다음에는 내던지는 전술이라고 비방증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 민족통일전선사상과는 아무

런 인연도 없는 왜곡이며 날조입니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일찌기 1930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내놓으시면서 창시된 완전히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의 길에 나서는 사람과는 그의 정견과 신앙, 재산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통일전선에 묶어 세우고 나라가 독립된 다음에도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혁명투쟁시기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참가한 각계각층의 애국자들, 종교인과 민족자본가들까지도 다 조국이 해방된 다음 반일공로자로 내세워주고 새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몫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천도교의 함남도 도정으로 있던 박인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끄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참가하여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하는데 공로를 세웠으며 따라서 그는 오늘도 평양 대성산에 있는 혁명렬사릉에 안치되어 영생의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그 후대들도 높은 국가적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8. 15해방 후 남조선에서는 우리와 사상과 정견을 달리하는 수많은 애국자들이 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잘 싸웠습니다.

몽양 려운형선생은 우리와 손을 잡고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다가 희생된 애국자의 한 사람입니다.

려운형선생은 여러번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왔는데 한번은 자기의 아들 딸들을 장군님께 보내겠으니 잘 키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려운형선생과의 의리를 지켜 그의 아들 딸들을 맡아 키워주시고 외국에 유학까지 보내 공부를 시켜주었으며 오늘은 그의 딸에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의 중책까지 맡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이 일단 손을 잡은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 단결해나가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밝히고 넘어갈 것은 지난 시기 맑스레닌주의는 통일전선문제를 혁명발전의 일정한 계기에 일정한 계급계층과 맺는 일시적인

연합, 전술적 동맹에 관한 문제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맑스는 1848년 독일혁명과 프랑스혁명에서 반동적 대부르췌아지를 반대하고 민주공화제를 수립하려는 민주주의자들, 소부르췌아지들과의 조직적 결합에 대하여 그것이 프롤레타리아의 독립적 지위를 상실하고 운동의 성과를 소부르췌아지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직접 투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타당한 동맹을 이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레닌의 좌익빨리전술도 일시적인 정치적 연합의 대표적 일 사례입니다.

좌익빨리전술은 정치적인 역량관계를 로동계급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술적 방침으로서 1905년 제1차 로씨야혁명기간과 그 직후에 적용되었던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공산주의자)와 혁명적 민주주의자의 연합으로 짜리즘과 부르췌아지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일시적인 전술적인 동맹이었습니다.

반공분자들은 100여년전의 맑스레닌주의 이론을 도용하여 주체의 민족통일전선사상을 “일시적인 리용 전술”로 비방하고 있지만 이것은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무지의 표현이며 고의적인 날조인 것입니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인민대중의 무궁한 힘에 대한 신뢰, 한없이 넓은 아량을 그대로 반영한 참된 애국애족의 사상입니다.

력사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사대주의와 파벌투쟁에 몰두하면 나라가 망하며 민족적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은 조선반도에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각축전을 벌이는 려강들의 침략에 대처하여 자주적으로 맞선 대신 친일파, 친로파, 친청파, 그리고 동인, 서인 등으로 갈라져 사대매국행위와 당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결국 나라를 일본 놈들에게 빼앗기는 민족적 비운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거해서 투쟁하여 승리한 자랑스런 력사가 있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에서 일제를 타승하고 승리한 것은 모

든 반일애국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였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그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민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 세워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었습니다.

1936년에 조직된 조국광복회는 일제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향하는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망라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습니다.

조국광복회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 그리고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반일애국 령량이 모두 결속되었습니다.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하여 항일혁명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민족적 단결의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8.15해방후 북에서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들였습니다.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호소하시었습니다.

그 후 북에서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민주주의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세기적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온 민족이 뜻을 합치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이 하나로 단결한 고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련석회의는 그 대표적 실례로 됩니다.

당시 남조선에서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 음모가 로골화되고 민족분렬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 당면한 구국대책과 나라의 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는 남조선에서 리승만의 직계정당을 내놓고는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한국독립당>의 당수였던 김구선생, 김규식선생과 상해림시정부요

인들도 참가하였습니다.

김구선생으로 말하면 <상해림시정부>의 주석으로 있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이지만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한자리에 모여 앉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자는 김일성장군의 제의에 공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김구선생은 김일성장군을 만나 뵈옵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김일성장군님과 같은 공산주의자와는 얼마든지 손을 잡고 나가겠다고 련공연합의 길에 나섰습니다.

김구선생은 남북련석회의에서 연설을 잘하였으며 남조선에 돌아가서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반동들에 의하여 암살되었습니다.

력사적인 4월 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는 누구나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년간에만 하여도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룩되었습니다.

1989년 문익환목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이제는 우리 민족이 통일되었다, 통일은 완료형이라고 환성을 올리고 돌아갔으며 최근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녀사가 김일성주석서거 1돐에 즈음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접견을 받고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는 신심에 넘쳐 통일운동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 사실은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아로새겨질 하나의 사변으로 됩니다.

묘향산을 탐승한 박용길녀사는 <묘향산>이란 시를 지어 읊었는데 그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구한 5000년에
처음 갈린 겨레들을
금수강산 한피받은
남남북녀 하나되게

대자연의 품에 안겨
통일 노래 부를 날을
우리 소원 이뤄주렴
산수절경 묘향산아

얼마나 통일을 절절히 바라며 민족이 하나됨을 갈구하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겨레의 마음이 점차 하나로 합쳐지면 결국 민족의 대단결이 이루어지고 조국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룩된 민족적 단합의 전통과 경험을 살려 온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민족적 위업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과 도시소자산계급, 자본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할 것없이 모두 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하고 투쟁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자면 민족공동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단결의 총적 목표가 뚜렷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목표 없는 단합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과녁이 없는 단결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 연방국가를 세우는 것을 총적 목표로 삼고 단결해야 목적지향성이 뚜렷한 단결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민족분렬의 장기화로 인하여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가 고착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북과 남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를 부인하면 대결을 면할 수 없으며 침해하면 충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이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고 모든 것을 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북과 남의 어느 측도 자기의 지역적 리익을 앞세워서는 안되며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계급적 리익을 민족적 리익우에 올려 세워서도 안됩니다.

만약 우리 민족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지역적, 계급적 리익을 앞세우기만 하면 언제 가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 수 없고, 통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북이건 남이건, 로동계급이건 자본가이건 다 갈라져 살 수 없는 하나의 민족이며 또 민족의 최고 리익은 조국통일입니다.

나라의 분단과 민족의 분렬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누구도 민족적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자기의 계급적 리익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이 리익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계급적 리익보다 민족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 원칙을 지켜야만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대단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이 단결의 기본원칙, 단결의 자막대기로 재어보고 그에 맞으면 장려하고 그에 맞지 않으면 부정하여 대단결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며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는 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북과 남사이에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서로 먹고 먹히우는 위구를 가지지 않고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단결을 가로막는 기본요인이 정치 군사적 대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정치싸움은 민족내부에 불신과 오해, 적대의식을 조장, 고취하고 분렬의 골을 깊게 할 뿐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과 남은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증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는 북과 남이 서로 경계하게 만들며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야기시키며 나중에는 동족사이에 전쟁의 참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고 침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대치되고 있는 실정에서 북침이든 남침이든 녹아날 것은 우리 민족이고 불바다로 될 것은 3천리강산입니다.

북과 남은 서로 위협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동족을 반대하여 외국군대와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북과 남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어느 쪽도 자기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은 조건에서 상대방에게 자기 제도를 강요하려 한다면 대립과 대결만을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에 자기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두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접촉과 래왕, 대화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만약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고 탄압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며 민족대단결에 해로운 것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이나 자본가이든 정치인, 경제인, 학자, 문화인, 종교인이든 누구나 다 통일론의와 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반대세력이라고 하여 그들의 통일론의와 활동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민족적 단결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있고 <대화창구일원화>정책으로 다각적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한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

다.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복권시켜 통일위업에 이바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남조선의 감옥들에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애국활동을 한 수많은 <정치범>들이 갇혀 있으며 최근에만 해도 대종교의 안호상선생과 같이 우리나라의 건국시조인 단군을 숭상하는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북을 방문했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며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 민족단합에서 장애로 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통일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통일된 다음 자기 재산이 침해당할까봐 걱정을 하며 사회적 명예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것이 상실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에서나 월남에서 지식인들과 재산가들, 상층들이 기득권을 상실한 사례를 보고 자기의 생존과 생활에 손해를 보는 통일에 대해 위구를 가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 자본과의 공동리권까지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적인 런방국가를 세울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만큼 누구에게나 그 어떤 손실을 주어서는 안되며 남조선의 매판자본가라 하더라도 통일의 길에 나선다면 그들의 재산상 기득권을 그대로 보호하며 그 어떤 위구심도 가짐이 없이 민족단합의 대오에 합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도 계속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말로만 해서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말로써만이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옮겨져야 단결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힘을 합치고 공동행동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됩니다.

따라서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 것을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 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북에서는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한 생을 바친 애국렬사들을 높이 평가해주고 <조국통일상>을 수여해주고 있으며 그 유자녀들을 나라에서 키워주고 민족간부로 내세워주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정견과 신앙, 과거경력이 어떻든지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이라면 다 단결하고 참된 삶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이며 한국인교회연합회 고문이었던 김성락목사도 그런 인사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양 신암동의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 평양송실중학교에 다니었고 도미류학을 하고 이름 있는 목사로 되었으며 1960년대에 다시 도미하여 로스앤젤레스 연합장로교회의 목사로 있으면서 미국정객들 속에서 적지않게 알려져 있으며 미국정부에서 연금을 타는 유일한 조선사람이었습니다.

1981년 6월 조국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비행장에 도착한 그는 기자들에게 자기에게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돌아가고 싶다고 자기의 도착소식을 보도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반공의식에 물젖어 있는 그의 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체류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기의 과거를 묻지 않고 민족적 양심을 믿어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그 은정에 감동되고 세기적 변혁을 이룩한 공화국의 현실에 탄복하여 내가 왜 이제야 평양을 찾아왔는가고 후회하였으며 평양을 떠나면서는 자진하여 비행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조국의 현실을 직접 보고 조국의 여러분들과 직접 상면하는 과정에 본인은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오해를 깨끗이 풀었습니다. … 민족도 강산도 그 민족, 그 강산이되 오늘과 같이 놀라운 현실을 국토 위에 가꾸어놓게 된 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주석은 하늘이 내신 위인이십니다. 주석께서 이런 훌륭한 조국을 마련해주셨는데 이 조국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국에서 다능다재하신 지도자선생을 주석의 후계자로 모신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는 그후 미국교포사회에서 많은 교포들과 교인들을 조국통일운동에 묶어 세우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조국통일이라는 거창한 민족적 위업을 실현하자면 통이 크고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며 쓰다고 뺏아버리고 달다고 꿀꺽 삼키는 식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과거에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도 오늘에 와서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고 민족의 품에 안아 재생의 길을 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지난날 남조선의 외무부 장관으로, 군단장으로 친미반공의 길을 걷다가 인생 말년에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들어선 최덕신선생과 같은 분의 실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해외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국을 방문하는 과정에 여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정의로운 위업에 바칠 결심을 품고 조국에 영주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그는 조국의 품에 안긴 후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족의 단결을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적으로 사업함으로써 애국렬사로 영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한 길에서 쌓은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라도 다 단결하여 애국위업에 함께 공헌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은 90년대 통일을 이룩할 각오를 가지고 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으며 이 거세찬 통일의 흐름 속에서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엄 있고 힘있는 민족으로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7천만 이상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 문화와 위력한 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온 겨레가 하나로 단결되고 조국통일이 실현되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의 슬기와 위용을 자랑스럽게 떨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더욱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될 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우리 모두 조선의 지식인의 한사람으로서 민족지상의 통일위업 수행의 성스러운 길에서 함께 단결하고 단결하여 지식을 가지고 특색 있는 기여를 하자는 것을 열렬히 호소합니다.